



주술적 초월과 회화적 서사의 세계

-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 재론

A Study On The Lyricism In Hwang Soon-won's Short Stories

저자 강헌국
(Authors) Kang, Hun-kook

출처 [Journal of Korean Culture 30](#), 2015.8, 141-166 (26 pages)
(Source)

발행처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ublisher)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05327>

APA Style 강헌국 (2015). 주술적 초월과 회화적 서사의 세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30, 141-166.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00.171
 2015/11/24 17: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주술적 초월과 회화적 서사의 세계*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 재론-

강 헌 국**

1. 서론
2. 주술적 초월의 의미
3. 회화적 서사 지향
4. 객관현실과 서정적 태도
5. 결론

〈한국어초록〉

황순원 문학의 시원에 시가 자리한다.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황순원의 문학적 이력은 그의 단편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목되었다. 서정성을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이라고 강조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서정성은 단편소설의 주요 속성이므로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으로 서정성을 지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격이 된다. 서정의 보편적 면모들을 열거하면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단편소설의 개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그러한 오류를 반성하면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주술적 초월과 회화적 서사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전래서사의 주술적 효과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 전래 서사가 직접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술적 효과가 삽화로서 서사에 복무하거나 더 나아가 서사의 구성 원리가 되기도 한다. 경험 현실이 주술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현실의 고통을 주술로써 초월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제의의 방식으로 서사가 짜이기도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15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다. 인상적인 장면으로 서술을 대신하는 방법도 황순원의 단편소설에서 자주 사용된다. 장면이 그 전후의 서사적 전개를 집약하는 현상을 가리켜 본 논문은 회화적 서사로 명명하였다. 서사의 통시적 전개가 회화적 현재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회화적 서사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에 복무한다.

서정은 주관 지향적이어서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위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현실 재현에 관한 한 황순원의 단편소설도 그러한 일반론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의 단편소설에서는 개관적 현실보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태도들이 재현된다. 황순원 단편소설의 작중인물들이 현실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인정주의와 인고에서 시작하여 허무주의가 드러나는 지점까지 진행한다.

주제어 : 단편소설, 서사, 서정성, 인정주의, 재현, 주술, 허무주의, 황순원

1. 서론

첫 단편소설을 발표하기 전까지 황순원은 스무 편이 넘는 시를 발표했고 두 권의 시집을 간행했다.¹⁾ 그가 시 창작에서 소설 창작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바는 아니다. 문학의 창조행위가 시적 정서의 발현으로부터 개시되는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시인으로 등단한 후 소설가로 변신하거나, 시 창작과 소설 창작을 병행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다만 황순원의 경우 그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주목되어서 그의 문학적 출발점이 지닌 남다른 의의를 돌아보게 한다. 그의 첫 단편집 『눈』과 관련하여 “그가 단편까지를 시의 연장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²⁾고 한

1) 장현숙이 정리한 ‘황순원 작품 목록’에 의거하였다. 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440-442쪽.

2) 김현, 『안과 밖의 변증법』, 『황순원연구총서3』,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303쪽. 2013년 황순원학회에서 황순원에 관한 평론과 논문들을 망라한 8권짜리 총서

김현의 직관적 파악을 필두로 그의 단편소설에서 서정적 면모를 읽어내는 논의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그 논의들은 서정성이 그의 단편소설이 지닌 개성임을 거듭 강조하였다.³⁾ 박진의 정리에 따르면 그 논의들은 세 가지로 나뉜다.⁴⁾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이미지가 주목되는가 하면, 순수하고 정감어린 세계에 대한 주제적 지향이 거론되었다. 내성적 인물과 화자의 주관적 서술 태도를 통해 서정성이 파악되기도 했다.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었음에도 본 논문이 그 문제를 재론하는 까닭은 구체성의 면에서 선행 연구의 성과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단편소설과 서정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에 입각할 때 선행 연구의 논의들은 일반론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황순원 단편소설에 고유하게 내재한 서정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단편소설(novelle)과 장편소설(novel)의 변별성에 대한

를 발간했다. 본 논문이 인용하는 논의가 그 총서에 수록된 경우 원출처가 아닌 그 총서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한다.

- 3) 서정성을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으로 평가한 기존의 몇몇 언급을 예시한다. 인용문 중의 ‘그’는 황순원을 가리킨다. “그의 단편은 서정시와 같은 정감과 인생의식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단편이 갖는 한 특성이다.”(조연현) “오늘날 한국 소설문학의 대가로서 높이를 받는 작가 황순원의 문학특질을 논함에 있어 맨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문학의 주조가 바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Lyricism에 있다는 점이다.”(구창환), “황순원의 문학세계에서 한결같이 아늑한 서정시적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중략)… 가령 그의 초기의 대표작인 『별』에서 독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탁월한 서정시적인 경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천이두), “문학적 습작을 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학세계를 단편소설로 바꾸었을 때도, 그의 소설이 일종의 서정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유종호), “흔히 일컫듯이 그의 소설에서 느끼는 서정성도 그의 서정 시인으로서의 미적 감각과 연결되는 점이라 생각된다.”(신동욱). 인용 순서대로 출처를 열거한다. 조연현, 『황순원단장-그의, 전집간행에 즈음하여』, 『황순원연구총서1』, 28쪽; 구창환, 『황순원 문학 서설』, 같은 책, 32쪽; 천이두, 『황순원 작품해설』, 같은 책, 103-104쪽; 유종호, 『황순원론』, 같은 책, 169쪽; 신동욱,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 한국적 삶의 인식 연구』, 같은 책, 269쪽.
- 4) 박진,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과 현현의 결말구조』, 『황순원연구총서6』, 215쪽.

인식 부족과 단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부터 선행 연구의 오류는 비롯된다.

서정성이 있어서 황순원의 단편소설이 특별하거나 이채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단편소설의 특성을 도외시한 전제로부터 비롯된 착시효과이다. 루카치는 서정성을 단편소설의 주된 요소로 지목한다.⁵⁾ 그에 따르면 대(大) 서사문학인 서사시와 장편소설에 비해 작은 규모의 서사체들은 총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작은 서사체들에서 서술자는 끝없이 무한한 세상사로부터 한 조각의 삶을 주관적으로 선별하고 구획하여 형상화한다. 작은 서사체들은 서술자의 주관성에 의해 총체성 대신 서정성을 획득함으로써 서사적 통일을 이룬다. 작은 서사체의 일종인 단편소설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황순원의 단편소설이 서정적이어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격이다. 서정성을 황순원 단편소설의 특징으로 보는 시각에 전제된 소설의 일반론은 엄밀하게 말해 노블, 다시 말해 장편소설의 일반론이다. 삶과 세계에 숨겨진 총체성의 형상화를 지향하는 장편소설은 서정성을 경계한다. 단편소설은 서정성에 의해 장편소설과 구별된다. 장편소설을 보는 시각을 전제로 황순원의 단편소설을 바라본다면 그의 단편소설에 드러나는 서정성이 특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단편소설은 당연히 서정성을 지니기 마련이므로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발견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기 어렵다. 그보다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이 지닌 고유한 개성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찰해야 한다. 그 개성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가 고찰한 바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서정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시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이미지,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서술자

5)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역, 문예출판사, 2007, 54-56쪽. 단편소설의 서정성과 관련한 다섯 문장은 본 각주에 표시된 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의 주관적 태도 등은 황순원이 다른 단편소설 작가들과 공유하는 서정성의 보편적인 면모들이지 황순원 단편소설의 고유한 개성이라고 거론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성과대로라면 황순원은 단편소설의 기본 문법에 충실한 작가로 자리매김 되고 그의 개성은 오히려 희석되는 결과를 빚는다. 그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논자들이 의도한 바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황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편소설의 일반론으로 환원하는 선행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본 논문의 논의는 전개된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수준에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거론했던 전래서사의 문제도 본 논문의 논의에 포섭된다.⁶⁾ 황순원의 단편소설의 서사를 추진하는 데 종종 활용되는 전래서사는 서정성의 일환으로 검토될 것이다.

2. 주술적 초월의 의미

황순원의 첫 단편집 『늪』은 과도기적인 양상을 띤다. 시적인 인식과

6) 황순원 소설의 이야기적인 특성에 대해 유종호의 「겨레의 기억과 그 전수」를 비롯하여 홍정선, 서준섭, 문홍술, 이동하, 서재원 등의 논의에서 주목되었다. ‘옛얘기’와 ‘이야기’, ‘설화’가 그러한 논의에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옛얘기’와 ‘이야기’는 그 단어들의 일상 언어적 사용과 그 경계가 변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설화’는 외연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술어들 대신 ‘전래서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언급된 논의들을 순서대로 열거한다. 유종호, 「겨레의 기억과 그 전수」, 『황순원연구총서3』;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황순원연구총서2』; 서준섭, 「이야기와 소설-단편을 중심으로」, 같은 책; 문홍술, 「전통지향성과 이야기 형식: 황순원」, 같은 책; 이동하, 「전통과 설화성의 세계-황순원의 「기러기」」, 『황순원연구총서4』; 서재원, 「황순원의 「목넙마을의 개」와 「이리도」 연구-창작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은 책.

방법이 관성처럼 남아 있는가 하면 소설을 향한 충동이 꿈틀거린다. 사건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기보다는 현재의 장면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눈』의 단편들은 다분히 서정적이다. 슈타이거에 따르면 서정시의 시제가 현재형인 것은 문법이 아닌 인식론의 차원에 파악되어야 한다.⁷⁾ 서정적 주체는 과거를 기억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하여 감각한다. 슈타이거가 회감(回感)이라고 부른 그러한 인식 작용을 통해 주체와 대상의 거리가 무화되고 시간은 정지한다. 서정적 현재란 바로 그 상태, 다시 말해 어떤 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 연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현재로 응고된 상태를 의미한다. 『눈』의 장면들은 현재형 시제의 감각적인 묘사 문장들에 의해 정지된 현재를 구현한다. 서정적 울림을 빚어내는 그 장면들이 서사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사는 사건들이 모종의 논리에 의해 통시적으로 접속됨으로써 구축된다. 황순원이 소설로 진행하려면 우선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 서사에 서술이 작용하여 본문을 실현함으로써 소설이라는 육체가 획득된다. 황순원은 현재화한 장면들의 배열을 통해 서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가 장면들을 배열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그는 논리 대신 상징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면들을 배열한다. 저마다 외적인 윤곽이 선명한 장면들은 서로 대조되거나 대비된다. 그 장면들 사이가 어떤 논리적 계기를 조성하는 서술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다. 서로 맞물리지 못한 장면들은 서사를 구축하는데 제대로 복무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에 수록된 단편들은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이고 경험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이며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다. 소설로 진행하려는 황순원의 서사적 충동이 그의 서정적 관성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눈』에 수록된 단편들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한 것이다.

7) E. 슈타이거, 『시학의 근본개념』, 이유영 오현일 역, 삼중당, 1978, 95-96쪽.

단편과 장편을 막론하고 소설은 서사에 의해 지탱된다. 소설이 서정성을 지닐 수 있지만 그 서정성은 서사라는 대전제에 부속된 것이다. 전술한 바처럼 서정성은 장편보다 단편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눈』의 단편들처럼 장면들이 배열될 경우 서정성이 서사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음으로써 사건보다 분위기나 정서가 두드러지는 결과를 빚는다. 서사가 진행되려면 그보다 진전된 방법이 요구된다. 황순원은 전래서사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서정적 현재로 고정된 장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눈』에 수록된 단편들 중에서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시도된 작품이 「닭제」이다.

「닭제」의 서사는 반수영감이 하는 세 가지 이야기에 의해 추진된다. 반수영감의 세 가지 이야기는, 소년이 기르는 수탉이 뱀이 된다는 것과 수탉이 뱀이 되어 소년에게 독기를 뿜었기 때문에 소년이 앓아눕게 되었다는 것과 사라진 소년이 재 너머의 못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들이 계기가 되어 소년은 기르던 수탉을 죽이고 반수영감은 뱀의 독기를 빼낸다면서 소년에게 매질하고 동네사람들은 소년을 찾으러 재 너머 못으로 달려간다. 반수영감이 하는 이야기는 속설이나 전설로서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지만 작중 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한다. 작중에서 유일하게 합리적 입장을 대표하는 교사가 반수영감의 이야기가 근거 없는 미신임을 입증하지만 소년은 죽음을 맞는다. 「닭제」의 서사는 결과적으로 반수영감의 예언대로 전개된 것이다. 전래서사의 도입으로 서사적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과학이 아닌 주술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가 창조된다. 그 세계에서는 전설이나 민담이나 속설 등이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원정」에서도 전래서사의 주술적 효과가 서사의 진행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 짐승이 집에 들어오면 좋다는 속설이 ‘나’로 하여금 식모가 길 잃은 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묵인하도록 하고 집을 나간 비둘기를 찾

아다니도록 한다. ‘나’는 중병을 앓는 아내와 관련하여 고양이가 좋은 징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비둘기가 나쁜 징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속설의 주술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원정』의 서사를 추진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전래서사의 주술적 효과는 첫 단편집 이후로도 황순원 단편소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 전래서사가 직접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술적 효과가 삽화로서 서사에 복무하거나 더 나아가 서사의 구성 원리가 되기도 한다. 『산골아이』는 전래서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여우고개의 전설과 반수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소년에게 경험 세계를 주술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소년은 입에 물고 잔 도토리 알을 여우고개 전설에 나오는 구슬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늦은 귀가와 반수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연결 지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별』은 전래서사를 인용하지 않지만 주술적 효과가 서사의 구성 원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별』에서 아이는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동네 사람의 말을 듣고 누이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누이처럼 못생겼을 리 없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이의 생각이다. 아이는 누이가 선물로 준 인형을 땅에 묻음으로써 누이에 대한 미움을 그 자신에게 분명히 한다. 그 직후 아이가 당나귀에게 걷어차여 나동그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 탓에 당나귀에게 걷어차였다고 여긴 아이는 당나귀 등에 올라타서 “그럼 우리 오마니가 뉘터럼 생겼단 말이가? 뉘터럼 생겼단 말이가?”⁸⁾ 하고 소리를 지른다. 누이의 선물을 땅에 묻는 행동이나 그 행동과 당나귀에 차인 일을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아이의 사고는 주술

8) 황순원, 『별』, 『늘/기러기 황순원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0, 165쪽. 이하 『황순원전집』에서 인용할 경우 작품명과 전집 권수 및 쪽수만을 표기한다.

적이다. 타인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그의 물건에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 그의 소유물이 서로 연결된다거나 물건이 그 주인을 대신한다는 사고의 소산이다. 아이가 인형을 땅에 묻은 후 당나귀에 차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아이가 당나귀에게 차인 일을 징벌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술적 세계관에서 비롯한다. 인형을 땅에 묻은 후 아이는 누이를 무시하고 박대한다. 누이에게서 어머니 같은 모습이 느껴질 때면 그런 느낌을 부정하기 위해 누이에게 더 매정하게 군다. 세월이 흘러 아이의 나이가 열네 살일 적에 누이는 동네 청년과 사귀다가 아버지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는다. 누이는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맺은 혼약에 따라 시집을 간다. 그로부터 얼마 후 누이가 죽었다는 기별이 아이네 집에 닿는다. 누이의 부고를 접한 아이는 예전에 인형을 묻었던 골목으로 달려가 땅을 파보지만 종내 인형을 찾지 못한다. 골목을 나온 아이는 예전처럼 당나귀에게 차이지 않았는데 당나귀의 등에 올라탄다. 아이는 날뛰는 당나귀의 등을 타고서 “왜 죽엔! 우리 널 왜 죽엔!”⁹⁾이라고 소리를 지르다 일부러 땅에 떨어져 구른다. 아이가 하는 행동은 예전과 유사하지만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르다. 아이는 죽은 누이를 되살리고 싶어서 인형을 다시 찾고자 한다. 아이가 당나귀를 타고 외치는 소리는 누이의 죽음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고 누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당나귀에서 떨어져 구르는 아이의 행동 또한 누이를 현실에 다시 불러내고 싶은 염원에서 비롯한다. 아이가 지난 일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하는 과정은 무속의 제의를 연상시킨다. 아이는 무당이 누이를 향한 속죄와 해원의 몸짓을 한다. 아이는 주술을 통해 고통스런 현실을 넘어서려 하는 것이다.

「독 짓는 늙은이」는 주술적 제의의 과정처럼 구성된다. 현실의 결핍을

9) 「별」, 『전집1』, 173쪽.

주술적 기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송영감의 독 짓기에 내포되어 있다. 송영감은 증병을 앓는 몸으로 독 짓기에 집착한다. 독 짓는 일을 중단하고 우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주변에서도 그의 무모한 노역을 만류한다. 뽕손이는 내년까지 일을 중단하자고 하고 방물장수 할머니는 앓는 몸을 돌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송영감은 쓰러졌다 깨어나기를 되풀이하면서 독 짓는 일에 매달린다. 그에게 독 짓기는 호구에 필요한 금전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한 가마의 독을 완성함으로써 아내와 조수가 도망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아내와 조수는 작중 현재에 등장하지 않고 송영감의 말과 생각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된다. 그러나 작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을 소개하는 말수만큼 작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작중에서 송영감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그들은 현실에서 부재하지만 송영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송영감의 독 짓기는 그런 그들과 펼치는 대결의 양상을 띤다. 송영감은 조수가 빚어놓은 독들을 의식하면서 그것들보다 나은 독을 빚으려 한다. 그래서 그의 독짓기가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수보다 훌륭한 독을 빚어 대결에서 승리한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도망갔던 아내가 돌아오고 조수가 처벌을 받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송영감의 필사적인 독 짓기는 그의 염원과 아무런 합리적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술적 기원의 성격이 강하다. 독들을 가마에 들고 불을 때는 과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가마를 채운 불길은 번제(燔祭)를 연상시키고 그 불길을 지키는 송영감은 사제처럼 보인다. 송영감에게 불길은 가마 안의 독들을 완성할 뿐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해야 한다. 그 불길은 “한결같이 불질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송영감의 두 눈 속에서도 타고”¹⁰⁾ 있었던

10) 「독 짓는 늙은이」, 『전집1』, 291쪽.

것이다. 그러나 송영감의 염원과 달리 가마 안의 독들이 터진다. 조수가 빛은 독들은 멀쩡한데 송영감의 것들이 대부분 부서진다. 그 참담한 결과 앞에서 송영감은 자신이 주제한 번제의 사제로 최후의 선택을 한다. 방물 장수 할머니의 편으로 전부터 말이 있던 집에 어린 아들을 양자로 보낸 후 송영감은 가마로 기어 들어간다. 아직 식지 않은 가마의 제일 안쪽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다. 그럼에도 송영감은 그곳까지 기어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좌절된 제의를 완성한다. 가마의 안쪽 끝으로 기어 들어가 희생 제물로 끓어앉는 송영감의 최후는 처절하고도 장엄하다.

열어젖힌 결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살 속에서 송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예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¹¹⁾

『어둠 속에 찍힌 판화』에서도 주술이 현실적으로 작용한다. 서술자 ‘나’가 세든 집의 주인 사내는 오랜 전에 사냥을 갔다가 잡은 새끼 뱀 노루의 피를 임신한 아내에게 먹인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 피를 먹고 사산을 한 후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새끼 뱀 노루의 피를 먹은 일을 사산과 그 이후의 불임에 연결 짓는 사고는 주술적이다. 그 주술적 사유가 사내로 하여금 아내의 사산 이후 사냥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내 몰래 감추어둔 총알 상자를 꺼내 만져보면서 사냥의 욕망을 달래도록 한다. 『목넘이마을의 개』에서 동장 형제가 자기들이 기르던 개 두 마리를 도살하여 그 고기를 지인들과 나눠먹는 장면은 고대의 희생제의와 유사한

11) 같은 책, 293쪽.

양상을 띤다. 동장 형제네 개들은 사라졌다가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온다. 전부터 동네에 출몰하는 신동이 개를 미친개로 단정하고 잡아 죽이려던 동장 형제는 자기 집의 개들이 신동이 개를 따라다니다 미쳤을 거라고 단정한다. 동장 형제는 신동이 개에 대한 살의를 자기 집의 개들을 도살함으로써 대신 실현할 뿐 아니라 그 고기를 지인들과 나눠먹음으로써 복을 부르려 한다. 동장 형제와 지인들은 ‘미친개 고기는 보약’이라며 포식한다. 『소나기』에서 소년은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간직한다. 그 조약돌은 소년에게 신물처럼 영험하다. 소년은 소녀가 보고 싶을 때 주머니 속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조약돌이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소녀가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소년이 하는 조약돌 만지기는 마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소녀네가 이사하기 전날 소년은 소녀를 기다리면서 주머니 속에서 조약돌 대신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린다. 소녀는 끝내 오지 않고 소년은 집에 돌아와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조약돌과 소녀의 출현을 연계시키고 조약돌을 호두알로 교체하는 서사의 진행에 주술적 사유가 은밀하게 스며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주술의 현실적인 효력을 신뢰하였고 그런 만큼 주술은 현실 세계를 해석하고 질서지우는 방식으로서 유력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근대 이후 주술은 현실적 효력이나 객관적 공감을 획득하지 못한다. 과학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근대의 세계에서 주술은 예감이나 기대, 소망과 같은 주관적 정서의 표출에 머문다. 주술은 서정에 포섭될 만큼 그 영역이 협소해진 것이다. 주술은 세계에 대한 태도는 될 수 있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별』이나 『독 짓는 늙은이』에서 주인공의 주술적 행위는 부정적 현실의 초월을 희구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세계에 대한 주관적 정서의 표출에 머물기에 서정적일 수밖에 없다.

3. 회화적 서사 지향

인상적인 장면은 황순원 단편소설에서 빈번하게 눈에 뜨이는 현상이다. 주술은 장면을 선호한다. 논증이나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술은 과학과 다르다. 구체적인 감각 경험에 의한 믿음이 주술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주술적 효과나 인식을 서사의 주된 구성 원리로 삼는 황순원의 단편소설에서 장면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나기』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잇달아 나온다. 소녀에 대한 소년의 감정은 직접 설명되지 않고 장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는 소녀의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¹²⁾고 한다. 갈밭 사이로 난 길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소녀의 모습이 소녀의 눈에는 갈꽃으로 보인다.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¹³⁾

소년의 눈에 비친 장면에 분석적이거나 설명적인 서술이 굳이 수행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장면은 침묵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나기』는 그러한 장면들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시간의 추이나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서술이 장면들의 사이를 채우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공행이 있을 뿐이어서 각 장면은 사진첩의 낱장처럼 교체된다. 서술을 배제한 채 장면들을 배열하는 방식은 『눈』에 수록된 단편들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소나기』는 그 단편들과 비교하여 완성도가 높다.

12) 『소나기』, 『전집3』, 11쪽.

13) 같은 책, 12쪽.

물의 심상을 이용한 서정적 울림이 가져온 결과이다. 『눈』의 단편들의 경우 장면마다 외적 윤곽이 선명하여 장면들 간의 이행이 부자연스럽다. 『소나기』에서는 물의 심상들이 일정한 질서에 의해 연쇄됨으로써 장면들 간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한다. 이 작품에서 물은 개울과 소나기와 도랑, 소녀의 스웨터에 묻은 진흙물의 형태를 취하고 그 물들을 매개로 두 주인공의 만남과 헤어짐이 전개된다. 소녀와 소년은 차례로 개울물에 손을 담금으로써 서로 가까워질 계기를 마련한다. 소년은 소녀를 피해 도망치다가 발을 개울물에 빠뜨린다. 소녀와 소년은 함께 들길을 걷다가 소나기를 만나 흠뻑 젖는다. 소년은 소녀를 등에 업고 물이 불어난 도랑을 건너고 그로 인해 소녀의 스웨터에 진흙물 자국이 생긴다. 소녀는 진흙물 자국이 남은 스웨터를 입한 채 묻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물을 매개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소녀와 소년의 관계는 소나기에 그들의 몸이 흠뻑 젖는 장면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후 한 몸이 되어 도랑을 건너 그들의 관계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소 요령부득인 대로 그 과정을 정리하면 ‘물에 손 담그기 → 물에 발이 빠지기 → 물을 흠뻑 뒤집어쓰기 → 함께 물 건너기 → 물이 마른 흔적’이 된다. 두 주인공의 만남에 성적인 의미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서술이 『소나기』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만남이 순수한 연애를 넘어서 성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게 된 것은 물의 심상들이 조성한 서정적 울림에 힘입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소녀의 유언은 소년의 기억에서도 진흙물 자국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긴다.

『소나기』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심상들을 엮어 의미를 조성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특징을 ‘회화적 서사’로 명명하고자 한다. 회화적 서사는 서술을 억제하는 대신 장면을 통해 사건을 전하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주조된 술어이다. 그 술어에 의거하면

『소나기』는 전편이 회화적 서사로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황순원의 다른 단편소설들에서 회화적 서사는 주로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별』이나 『독 짓는 늙은이』의 경우처럼 회화적 서사는 대개 본문의 말미에서 주제적 울림을 자아낸다. 『학』의 결구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내 이결루 올라갈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걸렸다. 쯔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¹⁴⁾

성삼은 치안대 사무소에서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였던 덕재를 만난다. 인공 치하에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덕재는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피난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다가 붙잡혀 온 것이다. 치안대원인 성삼은 덕재의 호송을 맡는다. 성삼은 도중에서 덕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다. 성삼 자신처럼 덕재도 농사꾼으로 전쟁을 겪었을 뿐이었다. 이념이 그들을 적으로 갈라놓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념보다 소중한 우정이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갔고 학을 잡아서 감추어 두고 놀다가 놓아준 적도 있었다. 그 기억들이 성삼으로 하여금 덕재를 죄인이 아닌 친구로

14) 『학』, 『전집3』, 55-56쪽.

다시 보게 한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은 덕재에게 가당치 않은 허울이었다. 본문에서는 덕재와 관련한 성삼의 그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그 대신 본문은 성삼과 덕재가 학 물이를 위해 풀숲 사이로 기어가고 그 위 하늘에 학이 날고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단편은 한 폭의 그림 같은 결구로 많은 설명을 대신한다.

『필묵장수』는 죽은 서노인의 괴나리봇짐에서 버선 한 켤레와 매화 그림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그 장면은 절름발이 서노인의 곤궁하고 적막한 생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두 개의 장면과 연관된다. 버선은 과거에 서노인이 하룻밤을 묵은 집의 중늬은이 여인이 지어준 것이었다. 여인은 서노인의 헤진 양말을 보고서 그가 갈아 신을 버선을 지었다. 여인이 아들의 혼숫감으로 보관해오던 무명필로 지은 버선을 서노인은 신지 않고 평생 간직한다. 매화 그림은 서노인이 여인의 따뜻한 정의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에게 전해주려고 보관해오던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서화를 배웠으나 재주가 모자라 수준이 떨어지는 그림이나 그리던 서노인은 6·25가 나던 해에 필생의 역작을 그린다. 그는 그 그림을 전하고자 여인에게 달려갔으나 여인의 집이 있던 동네는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필묵장수』는 결말의 장면과 그 장면으로부터 되새겨지는 두 장면이 한데 어울려 쓸쓸하고 아름다운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목넘이마을의 개』에서 동네 사람들이 신동이 개를 포위하여 잡으려다 놓치고 한 달이 지난 후 간난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 한 짝을 해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강아지 다섯 마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강아지들로부터 좀 떨어진 길가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신동이 개가 서 있다. 허기와 살해 위협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새끼를 낳은 신동이 개의 장하고 당당한 모습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보는 이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곡예사』에서는 고단한 현실을 서로 의지하고 견디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진다.

6·25전쟁을 맞아 부산으로 피난을 온 ‘나’의 가족은 호구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까지 시장으로 장사를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셋방을 비우라는 주인집을 독촉 때문에 가족의 피난살이는 더 고달프다. 움길 거처가 없어서 방을 비우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가족의 사정을 주인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귀가하던 밤거리에서 아이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른다. 막내는 ‘나’의 어깨에서 무릎을 타고서 무릎까지 한다. 밤거리에서 노래하고 무릎을 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에게는 문득 곡예단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곡예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오라,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 곡예를 했다. 남아는 자전거 곡예를 했다. … (중략)…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곡예단의 어린 피예로요,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무대는 이 부민동의 개천둑이고,¹⁵⁾

가족의 고단한 피난살이를 ‘나’는 곡예단의 공연처럼 여기려 한다.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려는 것이 관객 없는 밤거리에서 펼쳐지는 곡예단의 공연에 내포된 의미이다.

『소나기』를 비롯한 몇몇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장면은 그림과 같은 상태를 지향한다. 설명이나 분석, 논평 등이 억제된 채 제시되는 그 장면은 전체 서사에서 결절(結節)과 같은 지점이다. 그 결절은 사건의 진행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복무하기보다 그러한 역할에 저항한다. 오히려 결절에 해당하는 장면 쪽으로 그 전후의 사건들이 수렴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특정 장면이 조성하는 자장에 사건들이 포섭됨에 따라 장면 자체의 인상은 강화되는 반면 서사적 동력이 감소한다.

15) 『곡예사』, 『전집2』, 211쪽.

그로써 장면이 서사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장면에 복무하는 역전이 나타난다. 황순원의 단편소설이 독자에게 즐거리가 아닌 장면으로 기억되는 까닭도 그러한 역전과 무관치 않다. 사건들이 통시적 질서에 지배되기보다 장면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회화적 서사는 통시성보다 현재성이 두드러진다. 그 현재성이 회화적 서사를 서정성의 하위 개념이 되도록 한다.

4. 객관 현실과 서정적 태도

서정의 개념은 ‘세계의 자아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 설명은 서정의 주관적 속성을 잘 드러낸다. 서정은 현실에 관한 태도나 입장이 될 수 있어도 현실의 객관적 재현이 되기 어렵다. 서정의 방향은 현실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이다. 단편소설은 서사 갈래의 일원이지만 서정성을 주된 요소로 지니는 양식이다. 따라서 현실 재현의 면에서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진다. 서술자나 작중인물의 주관에 불려일으키는 시적 효과는 단편소설의 일반적 현상 중 하나이다. 주술과 회화의 방법으로 구현되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도 주관에 귀착된다. 그의 단편소설에서 주술은 주체의 기대나 염원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지 않는다. 그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인상적인 장면도 현실의 재현이라기보다 서술자나 작중 인물의 내면에 드리운 영상에 가깝다. 그 장면은 정서로 채색되어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주술과 회화의 방법은 당대 현실의 객관적 재현이라는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서술자나 작중인물에게 내면화된 현실이 재현된다. 『황소들』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만 작중에서 그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작인들이 지주의 집을 습격하는 과정이

소년 바우의 지각을 통해 재현되기 때문이다. 바우는 작중의 상황과 관련하여 극히 제한된 정보를 보유한 인물이다. 따라서 바우의 관찰과 추측을 통해 현실이 제대로 재현되기 어렵다. 동네의 남자 어른들이 심야에 집결하여 어디론가 향하고 바우가 그 뒤를 따른다. 바우는 동네 남자들이 낚알도둑을 잡으러 밤길에 나섰다고 짐작하고 그 짐작이 빗나가자 논물 문제로 이웃 마을 사람들과 싸우러 간다고 생각한다. 바우는 남자들의 행렬이 지닌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바우가 그러한 무지의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걷은 상황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지각의 주체인 바우에게 현실은 미지의 어둠과 같다. 바우는 식민지 말기 공출 미납을 이유로 아버지와 춘보가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고 몸을 다친 일을 기억하지만 동네 남자들의 집단행동에 내포된 의미를 그 일로부터 연상하여 파악하는 데까지 사유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바우는 밤길을 걷는 것이 무섭지만 전래서사 한 편이 그의 공포를 덜어낸다. 호랑이의 공격을 받는 청년을 그가 기르는 소가 구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바우에게 동네 남자들이 황소들처럼 보인다. 청년을 구한 소처럼 남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구하러 올 것 같아서 바우는 마음이 놓인다. 전래서사가 바우에게 주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바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전래서사와 관련지어 이해하며 남자들을 황소들에 비유한다. 그러한 바우가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위한 투명한 매개로서 기능할 수 없다. 동네 남자들이 심야에 지주의 집으로 몰려가는 이유에 대한 탐색과 고찰이 수행되지 않는 것도 바우가 지각의 주체로 설정된 때문이다. 황소들처럼 내달리는 남자들과 어둠 속에 일어나는 불길들이 악덕 지주에 대한 소작인들의 봉기라는 현실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대신 불안과 흥분에 사로잡힌 바우의 의식을 반영한다. 혼란의 와중에서 바우의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 머문다. 지주의 집 머슴인 귀동이와 재회를 기대

하며 바우는 마음이 설렌다. 소작인들의 봉기가 지닌 의의는 바우의 안중에 없다. 바우에게 현실은 여전히 미지의 어둠으로 남는다. 이 작품의 결말에 나오는 어둠이 그래서 상징적이다.

김대통령같은 비로소 생각난 듯 촛불을 입 앞에 당기어다가 헉헉거리는 입김으로 분다. 늘어진 코끝이 마지막으로 빛나고 껌벽 불빛과 함께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거기에는 다시는 그 흔들거리는 손도 그 크디큰 대통도 없었다.¹⁶⁾

이 작품에서 바우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극복되지 않는다. 마침내 현실은 어둠 저편으로 사라져 그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파편적인 경험이나 이해는 가능해도 그 전모는 파악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황소들』뿐 아니라 황순원의 단편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 단편들은 일제 말과 해방기와 6·25전쟁 같은 격동의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지만 그러한 당대 현실이 작중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황소들』의 경우처럼 작중인물의 경험을 통해 현실이 파편적으로 재현되거나 암시되는 정도이다. 그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어째서 현실이 그러한지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을 개조하거나 변혁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그러한 현실을 사는 주체의 태도가 주목된다.

황순원의 단편소설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주체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인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고이다.¹⁷⁾ 인정주의가 타자를 향한다면 인고는 주체의 내면에 형성된다. 어째서 현실이 고통스러운지 알 길 없지만 기왕에 현실이 그러하다면 사람들은 서로

16) 『황소들』, 『전집2』, 108쪽.

17) 김인환은 『별과 같이 살다』와 『카인의 후예』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인고’의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인환, 『인고의 미학』, 『황순원연구총서3』, 324쪽.

의지하면서 그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황순원이 그의 단편을 통해 펼치는 인정주의의 개요이다. 타인을 향한 공감과 포용이 세상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든다는 믿음이 그 인정주의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미 살펴본 「학」과 「필묵장수」를 비롯한 황순원의 여러 단편들에서 따뜻한 인간애가 목격된다. 「황노인」에서 황노인은 어릴 적 친구였던 재인에게 술을 따르고 「물 한 모금」에서는 중국 사내가 자기 집 헛간에서 비를 피하며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더운 물을 찻잔에 부어 건넨다. 황순원의 단편에서 인정주의와 인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타인에 대한 인정주의는 주체 자신에게 인고로 나타난다. 주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면화하여 인고의 태도를 취한다. 「곡예사」의 ‘나’는 고단한 피난살이를 곡예단의 공연으로 내면화하여 삭인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현실을 인고하는 것을 ‘나’는 삶의 방식으로 택한 것이다. 「목님이마을의 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인고하는 삶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힌다. 신동이 개는 방앗간의 곡식 찌꺼기와 동네의 개들의 밥그릇에 남은 찌꺼기로 연명할 뿐 아니라 동장 형제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곤 한다. 신동이 개가 고통스런 현실을 견뎌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과 새끼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신동이 개는 인고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미물인 개에게도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데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황순원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현실의 부정적 하중이 증가될수록 인정주의와 인고에 소모되는 정신력도 증가한다. 그 정신력의 소모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허무주의가 나타나고 그 허무주의는 현실도피를 부른다. 황순원의 단편에서 현실도피는 주로 음주를 통해 표현된다. 작중인물은 술을 마심으로써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자 한다. 그 현실은 작품에 따라 피난살이가 되기도 하고

지인의 배신과 사기, 타산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일』의 ‘나’는 번역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교수직을 사임한 영문학 전공의 학자이다. ‘나’는 일 년 동안 전력을 다해 번역 작업을 마치고 출판사와 교섭을 벌이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든 ‘나’의 번역 원고를 책으로 내려하지 않는다. 출판사는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의 번역 원고를 반려하면서 돈벌이가 될 만한 번역을 ‘나’에게 권한다. ‘나’는 처음에는 출판사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얼마 후 그 제안을 수락한다. ‘나’는 출판사가 원하는 번역을 하여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형편이다. 교수직을 그만둘 당시의 의욕은 온데간데없고 ‘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이 술이다. 그리고 술 덕분에 한 젊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된다. ‘나’의 음주와 연애의 이면에는 속된 세태에 대한 환멸이 자리한다. 젊은 여인과의 연애가 ‘나’에게 낭만적 세계를 동경하게 한다. 그러나 그 동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내일』의 결말에서 ‘나’는 젊은 여인에게 쓴 연애편지를 찢어버린다. 당대 현실에 대해 황순원의 단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인정주의와 전인의 자세로부터 출발하여 허무주의에 이른다. 세월이 흐를수록 현실은 더 속악하고 비정해지고 그에 따라 주체의 태도도 변한 것이다.

5. 결론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은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인으로 소급되는 그의 문학적 이력이 그러한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서정성은 단편소설의 주요 속성이므로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으로 서정성을 지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격이 된다. 서정의 보편적 면모들을 열거하면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개성

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단편의 개성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그러한 오류들을 반성하면서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이 지닌 고유한 개성으로 주술적 초월과 회화적 서사를 고찰하였다.

전래서사의 주술적 효과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 전래서사가 직접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술적 효과가 삽화로서 서사에 복무하거나 더 나아가 서사의 구성 원리가 되기도 한다. 경험 현실이 주술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현실의 고통을 주술로써 초월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제의의 방식으로 서사가 짜이기도 한다. 인상적인 장면으로 서술을 대신하는 방법도 황순원의 단편소설에서 자주 사용된다. 장면이 그 전후의 서사적 전개를 집약하는 현상을 가리켜 본 논문은 회화적 서사로 명명하였다. 서사의 통시적 전개가 회화적 현재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회화적 서사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에 복무한다.

서정은 주관 지향적이어서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위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현실 재현에 관한 한 황순원의 단편소설도 그러한 일반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단편소설에서는 개관적 현실보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태도들이 재현된다. 그 태도는 인정주의와 인고에서 허무주의까지 진행한다.

본 논문의 논의를 간추리면 이상과 같다. 본 논문은 황순원의 단편소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논의에서 고찰된 개성이 그의 장편에서 어떻게 연장되고 또한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에 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넘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황순원, 『황순원전집』1-4, 문학과지성사, 1982.

2. 논문 및 단행본

구창환, 「황순원 문학 서설」, 『황순원연구총서1』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32쪽.

김인환, 「인고의 미학」, 『황순원연구총서3』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324쪽.

김 현, 「안과 밖의 변증법」, 『황순원연구총서3』,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303쪽.

문홍술, 「전통지향성과 이야기 형식: 황순원」, 『황순원연구총서2』,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박 진,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과 현현의 결말구조」, 『황순원연구총서6』,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215쪽.

서재원, 「황순원의 『목님이마을의 개』와 『이리도』 연구-창작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황순원연구총서2』,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서준섭, 「이야기와 소설-단편을 중심으로」, 『황순원연구총서2』,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신동욱,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 한국적 삶의 인식 연구」, 『황순원연구총서1』,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269쪽.

유종호, 「황순원론」, 『황순원연구총서1』,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169쪽.

_____, 「겨레의 기억과 그 전수」, 『황순원연구총서3』,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이동하, 「전통과 설화성의 세계-황순원의 『기러기』」, 『황순원연구총서4』,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440-442쪽.

조연현, 「황순원단장-그의 전집간행에 즈음하여」, 『황순원연구총서1』,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28쪽.

천이두, 「황순원 작품해설」, 『황순원연구총서1』,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103-104쪽.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황순원연구총서2』, 황순원학회 편, 국학자료원, 2013.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역, 문예출판사, 2007, 54-56쪽.

E. 슈타이거, 『시학의 근본개념』, 이유영 오현일 역, 삼중당, 1978, 95-96쪽.

[Abstract]

A Study On The Lyricism In Hwang Soon-won's Short Stories

Kang, Hun-kook*

Hwang Soon-won started his literary career as a poet. He had run twenty two poems on literary journals and issued two collections of poems before publishing his first short story. His career as a poet has been taken importantly by the researches which studied his short stories. As a result of such an interest, many papers have insisted that lyricism i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his short stories. But lyrical character is not appropriated by his short stories. Short story as a genre generally contains lyricism. So those papers made a mistake that took a general matter as a special. I project this paper from critical review to those papers. And I propose 'magical transcendence' and 'pictorial narrative' as two characteristics of his short stories.

The magical effect of folktale functions as an main structural element in his short stories. In the case of any folktale not to be cited, the magical effect as an episode or a constituting principle, serves to narrative. some characters in his short stories, regard a real experience as a magical phenomenon, try to transcend torment of real life with the help of magic. In some cases, the narrative of his text are plott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magical rite. Magical transcendence is the name which this paper use to call such phenomena. The technique which substitutes impressive scene for narration, is frequently used in his short stories. I I call pictorial narrative the phenomenon that narrative process converges to such a scene.

Lyricism is difficult to be used in an objective copy to reality, because it tends to head for subject. Hwang Soon-won's short stories are no exception for this problem of realism. He copies not objective reality but the characters' subjective

* Collage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 email : narat1@korea.ac.kr

attitude to the reality. The attitude goes from humanitarianism and endurance to nihilism.

Key words : humanitarianism, Hwang Soon-won, lyricism, magical transcendence, nihilism, pictorial narrative, short story

논문접수일 : 2015. 07. 14.

심사완료일 : 2015. 08. 12.

게재확정일 : 2015. 08. 13.